

제 1일 국어공부 잘 하려면?

1. **국어책**을 읽는다.
정독
2. 읽으면서 **개념** 정리한다
노트정리
3. 개념을 반복 **복습**한다.
암기

제 2일 국어 범위

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|----|
| 문학 | 운문 | 시 | 고전시 | 시조 |
| | | | 현대시 | |
| | 산문 | 소설 | 고전소설 | |
| | | | 현대소설 | |
| | 극 | 희곡 | 연극대본 | |
| | | 시나리오 | 영화대본 | |
| 비문학 (독서) | 운문 | 없음 | | |
| | 산문 | 설명문 | 독자 이해 | |
| | | 논설문 | 독사 설득 | |
| | | 화법 | | |
| | | 작문 | | |
| 문법 | | | | |

제 3일 시

- 시의 3요소
1. **주제**
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
 2. **운율**
반복되는 시어는 무조건 운율
 3. **심상**
= 이미지
= 감각(시, 청, 미, 후, 촉각)

제 4일 소설

- 소설의 3요소
1. **주제**
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
 2. **구성**(발단-전개-위기-절정-결말)
 3. **문체**
- 구성의 3요소
인물, 사건, 배경

생활글. 일기. 편지

■ 특징

누 구나 쓸 수 있다.

나 = 작가 (실화)

형 식이 없다.

소 재가 다양하다.

개 성 있는 문체 사용.

■ 희곡의 3요소

희곡 = 연극 대본

1.해설

2.대사

3.지문(지시문)

■ 시나리오 = 영화 대본

■ 희곡 = 1막 1장

시나리오 = #15. 학교

■ 설명문

목적 : 정보전달 - 독자 이해

구성 : 처음(서론) - 가운데(본론) - 끝(결론)

■ 논설문

목적 : 자기주장 - 독자 설득

구성 : 처음(서론) - 가운데(본론) - 끝(결론)

■ 단락 구성 방식

설명문, 논설문 모두 해당

(1) 두괄식: (←중심내용)

(2) 미괄식:

(3) 중괄식:

(4) 양괄식:

(5) 병렬식:

비유

어떤 대상(원관념)을 다른 대상(보조관념)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

쟁반 같은 내 얼굴

↳ 보조관념 ↳ 원관념

* '유'자 들어가는 것

- (1) 직유법 : ~처럼, ~같이, ~듯, ~양
- (2) 은유법 : A는 B이다.

(3) 대유법 :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말함.

(4) 활유법 :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.

(5) 풍유법 : 속담, 명언 등을 인용.

* '의'자 들어가는 것

(6) 의인법 :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

(7) 의성법 : 소리를 흉내 내는 말

(8) 의태법 : 동작을 흉내 내는 말

(9) 중의법 :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짐

역설법

서로 모순(반대)되는 뜻이 겉으로 드러남

<예시> 작은 거인
(작다 ⇔ 거인 : 뜻이 서로 모순(반대) 됨)

- 유치환 <깃발> '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'
- 김영랑 <모란이 피기까지는> 찬란한 슬픔의 봄을'
- 이형기 <낙화>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
- 정지용 <유리창1> '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/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'
- 조지훈 <승무> '두 불에 흐르는 빛이 /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.'
- 한용운 <님의 침묵>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.'

반어법

서로 모순(반대)되는 뜻이 겉으로 안 드러남

<예시>
현진건 단편소설 '운수 좋은 날'
⇒ 사실은 아내가 죽은 '운수 안 좋은 날'

대구법

비슷한 어구를 나란히 배열

<예시> 인생은 짧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
예술은 길다 플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

설의법

누구나 아는 사실을 의문문 형태로 나타냄

<예시> 자유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?

제 10일 **여러 가지 용어**

- 음운** :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.
자음 모음
- 음절** : 한 글자
- 형태소 : 뜻(문법적인 기능)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
- 단어 : 조사도 하나의 단어이다.
- 어절** : 띄어쓰기 단위
- 문장 : 단어들이 모여 이루어진, 하나의 완결된 생각의 덩어리
- 단락(문단) :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

■ 한자성어

- 감탄고토(甘香苦吐) -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음.
- 결초보은(結草報恩) - 죽어서 혼령이 되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.
- 다다익선(多多益善) - 많을수록 더욱 좋음.
- 동병상련(同病相憐) - 처지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
- 부화뇌동(附和雷同) - 좇대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감.
- 상전벽해(桑田碧海) - 뽕나무밭이 변하여 바다가 된다.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함.
- 설상가상(雪上加霜) -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, 난처한 일이나 불행이 잇달아 일어남.
- 안빈낙도(安貧樂道) -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지냄.
- 유유상종(類類相從) - 같은 폐끼리 왕래하여 사귀.
- 일거양득(一舉兩得) - <비슷한 말> 일석이조(一石二鳥), 한 번에 두 가지 이익을 봄.
- 일장춘몽(一場春夢) - '한바탕의 봄 꿈' 이라는 뜻으로, 덧없는 일을 비유함.
- 전화위복(轉禍爲福) -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김
- 청출어람(靑出於藍) -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이르는 말.
- 탁상공론(卓上空論) -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
- 호가호위(狐假虎威) -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림.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.

■ 품사 (9품사)

| 형태 | 기능 | 의미 | 성질 |
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|
| 불변어 | 체언 | 명사 | 이름들 |
| | | 대명사 | 대신 사용하는 말 |
| | | 수사 | 순서, 수량 |
| | 수식언 | 관형사 | 체언 수식 |
| | | 부사 | 용언 수식 |
| | | 독립언 | 감탄사 |
| 가변어 | 용언 | 동사 | 움직임, 동작 |
| | | 형용사 | 성질, 모양, 상태 |

■ 문장성분 (7성분)

| 갈래 | 문장성분 | 설 명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성분 | 주어 | '무엇이' (이, 가, 은, 는) |
| | 서술어 | '어찌 한다, 어떠하다, 무엇이다' (다. 까? 오.) |
| | 목적어 | '무엇을, 누구를' (을, 를) 이루어지기도 함. |
| | 보어 | 서술어 [아니다/되다(안 되다)]를 보충 |
| 부속성분 | 관형어 | 체언을 수식해주는 말. '어떤, 어떠한' |
| | 부사어 | 용언을 수식(한정)하는 말. '어떻게' |
| 독립성분 | 독립어 | 부름, 감탄, 응답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루어진다. |

- 7 -

필독서

■ 꼭 읽어야 할 소설

1920년대 : 가난

- 김동인 <감자>
- 전영택 <와수분>
- 최서해 <박들의 죽음>
- 현진건 <운수좋은 날>

1930년대

- 김유정 <동백꽃> <봄봄>
- 이효석 <메밀꽃 필 무렵>
- 주요섭 <사랑손님과 어머니>

1940년대 : 광복

- 염상섭 <두 파산>
- 이태준 <복덕방> <돌다리>
- 채만식 <미스터 방>

1950년대 : 전쟁

- 박경리 <불신시대>

- 손창섭 <비 오는 날>
- 이범선 <오발탄>
- 하근찬 <수난시대>
- 황순원 <학>

1960년대 : 산업화 초기

- 김정한 <모래톱 이야기>
- 최인훈 「광장」
- 전광용 <개비만리>

1970년대 : 산업화 폐해 / 군부 독재

- 윤홍길 <아홉살레의 구두로 남은 내애>
- 황석영 <삼포 가는 길> <아우를 위하여>
- 조세희 <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>

1980년대 : 소시민적 삶

- 양귀자 <원미동 사람들>

고전 소설

- 흥부전, 춘향전, 심청전, 토끼전,
- 허생전, 양반전, 호질,
- 박씨전, 흥길동전, 민복사저포기, 이생규장전

- 8 -

표현법

- * **풍유법** : 속담이나 격언, 우화 등을 이용해 비유하는 방법(풍자해서 비유하는 방법)
예] ●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.(잘 알지도 못하는 이가 더 아는 체 하고 떠든다)
●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.(말은 저절로 퍼지니 말을 조심하라는 뜻)
- * **활유법** :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
예] ● 바람이 울부짖는다. ● 나무가 나래를 편다.
- * **중의법** : 하나의 낱말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니게 함
예] ● 흐르는 강물은 / 길이길이 푸르리니
(‘논개’에서의 강물 - ① 역사 ② 진주 남강)
- * **영탄법** : 슬픔, 기쁨, 감동 등의 감정을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 등을 써서 감정을 강하게 또는 간절하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
예] ● 그 석가탑을 만든 석공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은 얼마나 슬픈가!
- * **반복법** : 같거나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
예] ● 사슴을 따라, 사슴을 따라, 양지로 양지로
- * **점층법** : 점점 크게 표현
예] ● 가정에서, 학교에서, 사회에서, 나라에서 필요한 인물이 되자.
- * **점강법** : 점점 작게 표현
예] ●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해진다

- * **과장법** :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보다 훨씬 크거나 작게 표현
예] ● 눈물이 홍수처럼 넘쳤다. ● 간이 콩알만해졌다.
- * **열거법** : 비슷한 어구, 또는 서로 관련이 있는 말들을 여러 개 나열하여 의미를 강조.
예] ● 그는 지도자의 본보기요, 민족혼의 화신이요, 애국자의 사표요, 수양인의 거울이다.
- * **연쇄법** : 앞 구절의 끝말을 다시 다음 구절의 첫말로 삼아 글을 이어 나가는 표현 방법
예] ● 빨간 것은 사과, 사과는 맛있어, 맛있으면 바나나, 바나나는 길어, 길면 기차.
- * **도치법** : 정상적인 말의 순서를 뒤바꾸어 중심 내용을 두드러지게 하는 표현 방법
예] ● 뭐라고 썼을까? / 노오란 은행잎에.
- * **돈호법** : 사람이나 사물을 불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현 방법
예] ● 벗아! 어서 나와 / 해바라기 앞에 서라.
- * **생략법** : 문장의 중간에서 나머지 말을 줄임으로써 함축성이나 표현 효과를 더해 주는 표현 방법
예] ● “인제 다 닐냐?” / “아직도…….”
- * **문답법** :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여 문장의 흐름에 변화를 주는 표현 방법
예] ● 그렇다면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? 그것은 병립(竝立) 관계다.

필수 시조

1. 회고와 정절

- 오백년 도읍지를 匹馬(필마)로 도라드니
산천은 依舊(의구)하되 人傑(인걸)은 간 디 없다.
어즈버 太平烟月(태평연월)이 쏘이런가 흐노라. -길재 작
- * 나라 망함 탄식 = 망국지탄(亡國之歎), 맥수지탄(麥秀之歎)

2. 탄로가(嘆老歌)

-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지 쥐고
늙는길 가지로 막고 오는 백발(白髮) 막대로 치러터니
백발이 제 묻져 알고 즈림길로 오더라. -우탁 작

3. 단종 관련 시조

-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흔 님 여의옵고
내 마음 들되 업서 냇가에 안차시니
저 물도 내 안과 같아야 울어 밤길 예눗다. -왕방연 작
- * 지은이가 세조의 명을 받고 노산군으로 강봉된 단종을 영월까지 호송하고 돌아올 때 지은 작품. 시넷물 : 감정이입.

4. 기생들의 사랑노래 / 연정(戀情)

-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,
춘풍(春風)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,
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-황진이 작
- * 임에 대한 그리움. 시간의 구체화. 비유법을 통해 표현함

- 뒷버들 가지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터
자시는 창(窓)밭기 심거 두고 보쇼셔.
밤비에 새넛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. -홍강 작

5. 풍자와 해학

- 두더비 꼭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
건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(白松鵞)이 쟈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췌어
내뒷다가 두힘 아래 잣바졌구나.
모쳐라 늘넌 넬식망정 어혈질 번헛과라. -적자미상
- * 상황 : 두꺼비(탐관오리)가 파리(민중)를 물고 더러운 비료(똥더미) 위에 앉아 있다가, 하얀 송골매(중앙관리)를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가려다 두엄(재물, 권력) 아래 자빠지는 모습을 형상화. (탐관오리의 횡포 풍자)

6. 사친(事親)과 회한(悔恨)

- * 사친(事親) : 아버이를 생각함.
- 반중(盤中) 조홍(早紅)감이 고아도 보이는다.
유자(柚子) | 안이라도 품엄 즉도 헛다마는
품어 가 반기리 업슬식 글노 설워흐는이다. -백인로 작
- * 풍수지탄(風樹之嘆: 부모님이 돌아가셔서서 효도를 못함을 서러워함)

7. 자연과 풍류

-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(草廬三間) 지어 내니,
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(淸風) 한 간 맛져 두고,
강산은 들일 데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. -송순 작
- * 초장 : 안분지족(安分知足) *달,청풍,강산 = 나(물아일체, 물심일어)

